



또 역전패... 고개속인 호랑이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지난달 29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홈 경기에서 5-6으로 아깝게 패하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KIA는 10연패를 기록하며 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연합뉴스

팀장 교체한 KIA, 위기 탈출할까

지난달 29일 SK전 패배 후 '교체 인사'로 분위기 반전

윤기두 운영팀장-2군 총괄 오현표 차장 자리 맞바꿔

지난달 30일 KIA 타이거즈가 운영팀장 교체를 인사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운영팀장인 윤기두 부장과 2군 총괄인 오현표 차장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

전날 KIA는 안방에서 만난 SK에게 또 다시 역전패를 당하며 10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KIA는 전신 해태시절을 비롯해 팀 창단 이후 최대 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새로 썼다.

KIA는 지난달 18일 SK전 패배를 시작으로 다시 만난 SK와의 경기에서 10연패를 채웠다. 연패행진이 계속되면서 팀이 침체에 빠지자 KIA는 교체 인사로 분위

기 반전에 나섰다. 올 시즌 KIA의 코칭 스태프 교체 인사는 두 번째다.

지난 4월 28일 타선의 극심한 부진이 계속되면서 타격코치의 자리 이동이 있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한 최정호 코치가 1군에서 2군으로 자리를 옮겼고, 2군을 지키고 있던 이건열 코치가 1군 타격 코치를 맡았다.

타격코치 교체 이후 첫 경기였던 29일 KIA는 0-3으로 영봉패를 당했지만 이후 4월30일과 5월1일 두 경기 연속 선발타자 전원안타를 기록하면서 방방이가 불을

붙였다. 5월8일에는 팀 3만 안타까지 채우는 등 5연승이라는 쾌속질주를 하면서 인사 교체에 따른 '깜짝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6일 KIA는 다시 큰 위기에 봉착했다.

들쭉날쭉한 불펜과 타선의 움직임으로 시즌 초반부터 전력소모가 계속된데다 선발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면서 끝없는 추락만 계속했다.

올 시즌 10연승을 달리며 다승 1위에 오른 에이스 양현종이 두 차례나 홈런을 쳤지만 팀의 연패를 끊는데 실패했다.

양현종은 지난달 29일 SK를 상대로 연패 사슬 끊기에 나섰다. 하지만 5이닝동안 8피안타 3사사구 2탈삼진 5실점의 부진한 피칭을 보여줘 시즌 두 번째 패를 기록했다.

위기마다 팀을 구해줬던 구원자 양현종의 효력이 무위에 그쳐 결국 KIA는 두 번째 교체 인사 교체를 꺼내들었다.

기여물기자 wool@kwangju.co.kr

월드컵 기간 중 프로야구 관중 29% 감소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린 기간 프로야구 관중은 2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30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11일부터 전날까지 프로야구 60경기에 총 53만1천308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으며 경기당 평균 관중은 8천8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드컵 전까지 총 236경기에서 295만5천467명, 경기당 평균 1만2천523명을 기록했던 것보다 29.3%가 줄어든 수치다.

650만명 관중을 향해 순항 중인 프로야

구가 월드컵이라는 암초를 만나서도 관중 동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와 비교해도 실적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2006년에는 월드컵 전까지 총 195경기에서 135만2천855명의 관중이 입장, 경기당 평균 6천954명을 기록했고 월드컵이 열린 한 달 동안 77경기에서 38만4천600명만 야구장을 찾아 경기당 평균 4천995명(28.20% 감소)으로 뚝 떨어졌다.

연합뉴스



풍운아 이세돌 바둑 '상금 킹'

상반기 3억3천만원 벌어들여 이창호 제쳐...여자부 1위는 박지은

'돌아온 풍운아' 이세돌이 2010년 상반기 상금 선두를 달렸다.

이세돌 9단은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 우승 등 국내외 기전에서 맹활약하면서 누적상금 3억3천180만원을 벌어들여 2위 이창호 9단을 6천여만원 차이로 제치고 상반기 상금킹에 올랐다.

4월에 열린 제2회 비씨카드배에서 우승상금 3억원을 챙기며 단숨에 랭킹1위에 올라선 이세돌은 상하이엑스포 기념대국 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받았고 한국리그, 하이원리조트배 명인전 대국료 등을 추가하며 1위 자리를 굳혔다.

이세돌은 우승상금 1천500만원(약 2억원)이 걸려있는 후지쓰배에서 준결승, 춘란배(1억8천)에는 8강에 올라있고 국내 양대기전인 하이원리조트배와 KT배에서도 1억원의 우승상금을 노리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상금규모를 자랑하는 한국리그에서도 팀이 4연승으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어 2008년에 기록한 자신의 연간 최다상금 7억1천930만원을 경신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2010년 상반기 상금랭킹 10걸

순위	이름	상금액	주요성적
1	이세돌	331,800,000	비씨카드배 우승
2	이창호	271,178,640	바둑왕전 우승
3	박정환	99,568,240	원익배 우승
4	박영훈	82,687,400	농심배 우승
5	김지석	72,402,400	후지쓰배 본선
6	최철한	58,629,520	맥심배 우승
7	윤준상	46,930,000	농심배 우승
8	김승재	45,910,000	농심배 우승
9	김동윤	41,183,440	맥심배 준우승
10	김기용	40,885,000	비씨카드배 4강

있다.

2005년, 2007년, 2008년에 상금왕에 올랐던 이세돌은 이번이 4번째 상금왕 등극 도전이다.

2위에는 2억7천110만원을 받은 이창호 9단이 올랐다.

1월에 원익배 입단전 준우승(1천500만원), 2월에는 LG배에서 준우승(8천만원)하며 1위에 올랐던 이창호는 이후 바둑왕전 우승(2천만원), 농심배 우승(7천950만원)으

로 착실하게 상금을 추가하며 3월까지 2억5천380만원으로 1위를 질주했다.

하지만 이세돌의 비씨카드배 우승 한방에 단숨에 역전당하며 1위 자리를 빼앗겼다. 그러나 2억5천만원의 우승상금이 걸린 LG배 8강에 올라있고 국수전, 원익배 입단전 등 국내기전에서 맹활약하고 있어 이세돌과의 치열한 상금왕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위에는 박정환 8단이 올랐다.

18세의 박정환은 원익배 입단전 우승으로 5천만원, 비씨카드배 4강으로 3천만원을 획득하는 등 9천950만원을 벌어들여 2년 연속 역대상금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정환은 불과 6개월만에 지난해 기록한 자신의 연간 최다상금액(1억630만원)에 육박하며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4위는 8천260만원의 박영훈 9단이 차지했고 김지석 7단이 7천240만원으로 5위에 올랐다.

여기까지로는 박지은 9단이 3천880만원을 벌어들여 2천850만원을 받은 루이나이웨이 9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여수공고 씨름 김성률배 단체전 우승

서리나 "2연패 보인다"

윌블던테니스 4강 안착

소장급 김기선 개인전 승

여수공고가 제7회 확산 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정상에 올랐다.

여수공고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마산전산여고 체육관에서 진행된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경북 의성고를 4-3으로 누르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소장급의 김기선(3년)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임진원(3년)과 김성모(3



제7회 확산 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우승팀 여수공고 선수들과 지도자들

년)도 각각 소장급과 소장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2학년 박정민은 역사급에 출전해 동메달을 추가했다.

기여물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청 박태경 110m 허들 아쉬운 銀

전국실업육상, 전덕형 200m 우승

전덕형(26·경향대)이 남자 육상 200m에서 정상을 재확인했다. 박태경(30·광주시청)은 110m 허들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전덕형은 30일 강원도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끝난 2010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대회 200m 결승에서 2초17을 찍고 우승했다.

이날 초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역대 두 번째로 빠른 20초65를 찍고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B 기준기록(20초75)을 넘어선 전덕형은 개인 최고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꾸준히 좋은 기록을 작성하면서 11월 광주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남자 110m 허들 한국기록(13초53) 보유자인 이정준(26·안양시청)은 이날 결승에서 13초77을 찍어 라이벌 박태경을 0.03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기여물기자 wool@kwangju.co.kr

'흑진주' 서리나 윌리엄스(1위·미국)가 윌블던테니스 여자단식 4강에 올라 대회 2년 연속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윌리엄스는 30일(한국시간) 영국 윌블던의 윌리엄스클럽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여자단식 8강에서 리나(12위·중국)를 2-0(7-5 6-3)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그러나 앞서 열린 경기에서 언니 비너스(2위·미국)가 스베라나 피르코바(82위·불가리아)에게 0-2(2-6 3-6)로 져 탈락하는 바람에 3년 연속 '윌리엄스끼리 결승'을 펼치려던 꿈은 무산됐다.

윌리엄스는 4강에서 페트라 크비토바(62위·체코)와 맞붙는다. 크비토바는 카이아 카네피(80위·에스토니아)를 2-1(4-6 7-6(8) 8-6)로 꺾고 4강에 올랐다. 크비토바는 3세트에서 게임스코어 0-4, 2-5까지 뒤지는 등 매치포인트에 5차례나 몰린 끝에 힘겨운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 여자단식 4강은 윌리엄스-크비토바, 피르코바-베라 즈보나레바(21위·러시아)로 열리게 됐다. 윌리엄스를 빼고는 모두 메이저 우승 경험은 고사하고 결승에 올라본 적도 없는 선수들이다.

피르코바와 크비토바는 시드도 받지 못했다. 시드 없는 선수 2명이 4강에 오른 것은 1999년 이후 11년 만이다.

연합뉴스

법률경제전문법인 인마음법률경매(주)

※ 위치 : 광주역 전남일보 4층 062) 525-8880 010-8640-3990

"지역별, 용도별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원하는 물건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소재지	면적(㎡)	건물	건물	최저가	비고
광주	동구	1481	1998년	82㎡	82㎡	3군구
	서구	851	8년	58㎡	58㎡	4군구
	북구	1586	293년	1998년	1998년	4군구
	북구	363	191년	89㎡	89㎡	4군구
	북구	208	298년	1998년	1998년	4군구
	북구	2579	495년	391년	391년	4군구
	북구	876	127년	124㎡	124㎡	4군구
	북구	473	1998년	89㎡	89㎡	4군구
	북구	283	224년	127㎡	127㎡	4군구
	북구	363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대구	중구	1963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중구	119	74년	28㎡	28㎡	4군구
	중구	314	81년	398㎡	398㎡	4군구
	중구	281	1998년	707㎡	707㎡	4군구
	중구	25190	42년	283㎡	283㎡	4군구
	중구	1491	1998년	82㎡	82㎡	4군구
	중구	337	8년	58㎡	58㎡	4군구
	중구	292	1998년	82㎡	82㎡	4군구
	중구	340	1998년	65㎡	65㎡	4군구
	중구	1242	12년	4㎡	4㎡	4군구
부산	북구	2433	42년	3년	3년	4군구
	북구	5010	1998년	981㎡	981㎡	4군구
	북구	1173	124년	8㎡	8㎡	4군구
	북구	22116	191년	883㎡	883㎡	4군구
	북구	3469	42년	31㎡	31㎡	4군구
	북구	2782	1998년	585㎡	585㎡	4군구
	북구	664	62년	42㎡	42㎡	4군구
	북구	1567	1998년	1998년	1998년	4군구
	북구	1472	22년	137㎡	137㎡	4군구
	북구	50196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전남	광주	8258	62년	42㎡	42㎡	4군구
	광주	48604	1998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1093	124년	9㎡	9㎡	4군구
	광주	3639	698년	294년	294년	4군구
	광주	2786	1998년	79㎡	79㎡	4군구
	광주	145983	62년	42㎡	42㎡	4군구
	광주	15789	124년	1㎡	1㎡	4군구
	광주	227191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202192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121182	497년	429㎡	429㎡	4군구
전북	광주	217448	294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4152244	1697년	89㎡	89㎡	4군구
	광주	112481827	397년	2998년	2998년	4군구
	광주	1863516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9822273	1391년	5998년	5998년	4군구
	광주	4401011	1098년	7998년	7998년	4군구
	광주	202191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202192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121182	497년	429㎡	429㎡	4군구
	광주	217448	294년	1998년	1998년	4군구
전북	광주	134112	398년	297년	297년	4군구
	광주	982193	798년	594년	594년	4군구
	광주	801525	497년	398년	398년	4군구
	광주	152233	1998년	62년	62년	4군구
	광주	3431283	792년	594년	594년	4군구
	광주	512521	2998년	2998년	2998년	4군구
	광주	4401011	1098년	7998년	7998년	4군구
	광주	202191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202192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121182	497년	429㎡	429㎡	4군구
전북	광주	217448	294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4152244	1697년	89㎡	89㎡	4군구
	광주	112481827	397년	2998년	2998년	4군구
	광주	1863516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9822273	1391년	5998년	5998년	4군구
	광주	4401011	1098년	7998년	7998년	4군구
	광주	202191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202192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121182	497년	429㎡	429㎡	4군구
	광주	217448	294년	1998년	1998년	4군구
전북	광주	134112	398년	297년	297년	4군구
	광주	982193	798년	594년	594년	4군구
	광주	801525	497년	398년	398년	4군구
	광주	152233	1998년	62년	62년	4군구
	광주	3431283	792년	594년	594년	4군구
	광주	512521	2998년	2998년	2998년	4군구
	광주	4401011	1098년	7998년	7998년	4군구
	광주	202191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202192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121182	497년	429㎡	429㎡	4군구
전북	광주	217448	294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4152244	1697년	89㎡	89㎡	4군구
	광주	112481827	397년	2998년	2998년	4군구
	광주	1863516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9822273	1391년	5998년	5998년	4군구
	광주	4401011	1098년	7998년	7998년	4군구
	광주	202191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202192	295년	1998년	1998년	4군구
	광주	121182	497년	429㎡	429㎡	4군구
	광주	217448	294년	1998년	1998년	4군구
전북	광주	134112	398년	297년	297년	4군구
	광주	982193	798년	594년	594년	4군구
	광주	80				